

# 큰빛은예교회 가정예배지

2025. 5. 28. WED



## 가정 예배 순서

**예배준비**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해주세요  
인도자 / 기도자 등의 순서를 정해주세요

사도 신경

다 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양

“하나님이시여”

다 같이

각 가정마다 악기를 가지고 아래 찬양 혹은 원하시는 찬양을  
선곡하여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Verse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Pre-Chorus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Chorus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대표 기도

가족 중 한 명이 기도합니다

기도자

성경 봉독

창세기 19장 16절

다 같이

16.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인자)를 더하심이었던라

본문에는 여호와와 끝없는 자비와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남아 있는 인간의 재물에 대한 미련이 하나님의 성품과 대조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비라는 말은 예전 성경 버전에 '인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헴라'로 '아끼다', '용서하다', '궁휼히 여기다' 등의 복합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를 '아끼어' 인간적인 미련함을 용서하시고 구원받을 자로 '남기기' 위해 끊임없이 '궁휼하심을 보이시는' 것이 바로 여호와와 '인자하심'입니다. 그 인자하심이 롯의 사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첫째, 인간의 지체하는 마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어 롯을 구원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롯은 구원의 초대를 받았지만 그 길로 들어서는데 과감하지 못했습니다. 본문 16절 상반절에 보면 롯은 지체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여기서 '지체하다'는 뜻은 의문사 '무엇', '언제', '어찌하여' 등의 뜻에서 유래하여 '의아해 하는' 상태를 보여 줍니다. 즉 마음에 여러 가지 의문을 품으며 결정을 미루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죄로 오염된 인간이 영적으로 얼마나 무지한가를 보여 줍니다.

롯 역시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죄로 오염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지체하는 모습에서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묵상하고 여전히 죄악된 세상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닌지 돌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머뭇하고 있지는 않은지 가정과 개인의 삶에 적용해보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 둘째, 여호와와 인도하심

본문 16절 중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가 롯의 가족들의 손을 개개인 잡고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이 표현은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가 주체가 되어 행동하며 롯의 가족은 수동적인 자세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 줍니다. 특히 '잡다'란 말은 '달라붙다'란 기본 뜻을 가지며 '힘 있게' 혹은 '극렬하게', '붙들다'란 뜻을 가짐으로써 롯의 가족 하나 하나를 결코 놓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잘 드러납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의 손을 잡아 주고 이끌어 주고 있나요? 아니면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가고 있나요? 주도적인 삶을 통해 나 자신과 가정 그리고 주위 사람들의 손을 잡아 주는 성도가 되 시기를 축복합니다.

### 셋째, 여호와와 인자하심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선이시므로 모든 피조물에게 선을 베푸십니다. 그 가운데 특히 선택한 자에게 주어지는 자비는 인간에게 자격이 있고 없음과는 상관없이 베풀어집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본문 16절 하반절에도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인자)하심이 더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 “.....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